

# 치사율 90%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공포에 빠진 지구촌

### 지난 3월 처음 확인 후 700명 사망... 치료약·백신 없어

### 세계 각국, 차단에 전전긍긍... WHO, 비상 사태 논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세계가 고열을 앓고 있다.

치료약과 백신이 없는 탓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처럼 고열 증상을 보이다 후수상태에 빠지면서 최고 90%의 치사율을 기록해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난 탓에 기니 현지 주민들은 전염 경로를 차단하고자 '정글 칼'로 무장한 채 과학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근조차 막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현지 발로 보도했다.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미국인 두 명을 미국으로 옮겨 치료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에볼라가 미국에 퍼질 것"이라며 환자 이송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라이베리아에 있는 미국인 환자 두 명을

**Q** 에볼라 바이러스에 볼라 출혈열. 치사율이 높은 급성 열성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두통과 근육통, 발열이 발생한 후 전신 무력감과 허탈, 피부 발진, 저혈압, 그리고 흔히 전신성 출혈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 주로 아프리카에서 기원해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다.

데려오려고 특별기를 보냈다. 환자들은 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 병원 특별격리 시설에 수용됐다.

이 시설은 위험한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년 전에 설립했다.

이전에 수용된 환자들 모두 감염되지 않

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에 수용된 켈트 브랜틀리 박사가 전염병에 걸려 수용된 것 사례다.

실제로 브랜틀리 박사의 격리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랜틀리 박사의 치료를 전담하는 CDC의 톰 프리튼 소장은 3일 한 방송에서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호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브랜틀리 박사의 송환을 질타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별것 아니라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애틀랜타에서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수크루 아이든은 "이미 미국에 있는 AIDS나 다른 질병과 다른 게 없다"고 했고, 조지아주립대 심리학자 학생인 엘리안 피코는 질병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서아프리카가 출신국 인몰과 접촉을 꺼리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덕성여대와 유엔 여성기구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에서 주최 측은 나이지리아 출신 학생 3명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의료봉사단체 '굿뉴스의료봉사회'는 아프리카 4개국에서 열기로 한 행사를 비슷한 논란이 일자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영연방(커먼웰스) 경기대회에 출전한 시에라리온 사이클 선수들이 잠적하기도 했다.

서아프리카 정상들이 국제회의 참석조차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공포심은 높아지고 있다.

4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에볼라 대응을 이유로 불참키로 했고, 기니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비슷한 증세의 라사(Lassa) 열병이 1969년 나이지리아에서 확인돼 연간 30만명의 감염자와 5000명의 사망자를 내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WHO는 6일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적 대응과 공조를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적 공조보조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중국 원난성 규모 6.5 강진 발생... 사망자 381명

### 교통 두절·주택 500채 파손

### 진앙지 알고 건물 넘어 큰 피해 여진 계속돼 사상자 늘어날 듯

중국 남서부 원난(雲南)성 자오통(昭通)시 루옌(魯甸)현에서 3일 발생한 규모 6.5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8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4일 오전 8시40분(현지시간) 현재 사망 381명, 실종 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중앙(CC)TV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진앙지인 루옌현에서 302명, 차오자(巧家)현에서 66명, 취징(曲靖)시 후이쩌(會澤)현에서 10명, 자오통시 자오양(昭陽)구에서 1명 등이 각각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부상자도 2000여 명에 달하고 여진이 200회가량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루옌현 관계자는 "루옌현의 7.5km가량에 걸친 진앙 부근지역에는 교통이 두절되고 500~600채의 가옥이 무너졌다"면서 "학교, 병원, 파출소 등이 모두 폐허로 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피해가 점점 커지자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진 직후 '국가 제3급 긴급구조' 조치를 가동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진 피해가 보고된 직후 인명구조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재난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규모 6.5의 지진으로 360여명이 사망한 중국 원난성 자오통시 루옌현에서 3일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업고 의료시설로 급히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국가방재위원회 비서장, 민정부 부부장 등으로 구성된 '국무원공작조직'을 이끌고 지진지역으로 출발했다.

원난성 당국과 군부대 등은 주택 붕괴와 산사태로 인해 조난을 당한 주민 구조와 사망자 수습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군은 원난군구와 육군 제14집단군,

원난 무장경찰대 등 4000여 명이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이례적인 인명 피해가 난 데 대해, 진앙의 깊이가 약 12km 정도로 매우 얕았고 진앙지역의 인구가 밀집한 데다가 옥들이 남아 내진시설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지진과 관련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안성국 총영사는 4일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의 인명 피해는 없다"면서 "지진 피해지역은 자주 찾는 관광지도 아니어서 교민이나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7시간 휴전 일방 선언

### 국제 원조·주민 귀향 위해

### 전세계 만류에도 종전은 안해

이스라엘 지상군이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부분 철수한 데 이어 7시간 휴전을 일방 선언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4일 오후 3시)부터 인도주의적 원조와 팔레스타인 주민의 귀향을 위해 7시간 동안 휴전하며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인 가자 남부 라파 지역은 제외된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 대변인 피터 러너는 3일 하마스가 파 놓은 땅굴 30여 개를 찾아내 상당한 타격을 줬다며 땅굴 파고 작전을 거의 다 끝내면서 지상군 다수도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지상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때 최대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가자 남부에서는 탱크와 장갑차, 군 병력이 이스라엘 접경지대로 천천히 철수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그러나 러너 대변인은 "(가자에서) 작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하마스의 로켓 발사와 이스라엘 침투에는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가자 공격을 지속해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속출했다.

가자 남부 라파에서는 유엔학교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무도한 행위이자 범죄 행위"라며 "이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되는 끔찍한 폭력 행위를 비난하면서 "유혈 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학교에 폭탄을 터뜨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폭력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 총장의 요구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연합뉴스

# 팁 강요하는 스파이더맨... 뉴욕시 골치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타임스 스퀘어의 새로운 고민거리인 캐릭터들을 집중 조명했다.

최근 스파이더맨으로 분장한 사람은 경찰과 심하게 싸우다가 체포됐다. 경찰이 관광객들에게 너무 거칠게 팁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일이 확대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다른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체포됐다. 팁을 달라며 한 명은 여성을 만진 혐의로, 다른 한 명은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캐릭터들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자주 발생하자 뉴욕시는 이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kjhr.com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